

국제기술사 상호인정 체제에 따른 세계시장 진출전략

Global Market Participation Strategy by The International Mobility of Professional Engineers



글 | 李 宣

(Lee, sun)

도로및공항기술사, 교통기술사,
도시 및 지역계획 박사,
한국기술사회 홍보위원,
신명건설기술공사 부회장.

E-mail : sunleephd@hanmail.net

There are three major international agreements governing mutual recognition of engineering qualifications and professional competence of the International PEs, namely, Washington Accords, APEC engineer agreement and EMF agree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APEC Engineer Coordinating Committee and Engineers Mobility Forum established international registries with the goal of improving international mobility. APEC and EMF membership requires minimum qualifications for licensure with the minimum standards including engineering education, Professional experience, compliance with home jurisdiction requirements, having verified record of responsible charge, and demonstrating a commitment to continuing education.

1. 기술사법의 개정과 국제기술사자격의 요건

정부는 기술사 국제통용성 업무의 주무부처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지정하고 우리나라 기술사자격의 국제적 통용성확보를 목적으로 APEC엔지니어와 EMF(Engineers Mobility Forum)의 국제기술사 심사 및 등록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일원화 하였다. 또한 Washington Accord(WA)의 가입을 승인 받고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학교육인증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한국기술사들의 세계기술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기술사의 직무에 관한 기술능력을 유지 향상시키고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교육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기술사 자격인정 기준 및 절차(법 5조의 2)와 기술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

여 (법 5조의 3)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술사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기술사법을 2007.1.26 법률 제 82678호로 공포하였다.

개정된 기술사법에 근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을 확정하고 국내기술사자격의 국제통용성 확보체제를 확립 하였다 (기술사법 5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조 제2항 참조). 지난2008년 8월 22일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의 고시와 함께 국제기술사 자격 심사등록업무가 한국기술사회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기술사회가 기술사법시행령 26조 1항에 근

거하여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한 심사와 국제기술사자격 인정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8-146호에 의한 국제기술사의 등록자격요건은 우선 기술사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학사이상의 공학교육 이수, 독립적인 업무수행능력의 보유, 학사이상의 공학교육 이수 후 7년 이상의 현장실무경력보유, 기술사 직무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보유(법3조 제1항), 기술사 윤리과목을 포함한 충분한 수준이상의 계속교육 이수(3년간 150학점)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APEC엔지니어와 EMF의 회원국 가입 현황

APEC엔지니어 협력기구는 1996년 아-태 지역내 회원국 간의 기술사자격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로 발족하였다. 2000년에 한국을 비롯하여 호주, 캐나다,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 7개국이 우선적으로 정회원국(Full Member)이 되었고 뒤를 이어 2001년에 미국, 인도네시아, 2003년에 필리핀, 태국, 2005년에 대만, 싱가포르 등이 추가되어 현재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경제권 국가 중 13개국이 정회원국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6월 13일부로 정회원국으로 가입되었다.

EMF는 회원국사이에서 승인된 유자격 국

제기술사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업무수행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발족되어 호주, 캐나다, 홍콩, 뉴질랜드, 남아공, 영국, 미국, 아일랜드 등 8개국이 제일 먼저 1997년에 정회원국으로 가입된 후 1999년에 일본과 말레이시아, 2000년에 한국, 2007년에 싱가포르와 스리랑카가 가입함으로써 현재까지 모두 13개국이 정회원국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다. 그 외에 방글라데시, 대만, 인도 등 3개국은 현재 조건부 회원국(Provisional Member)으로 등록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6월 16일 비교적 빠른 순위로 EMF의 정회원국(Full Member)으로 되어 있다.

3. 국제기술사(IntPE) 일원화에 합의

2003년 6월에 개최된 IEM2003총회에서 APEC엔지니어와 EMF를 통합한 국제기술사(IntPE) 일원화에 양 기구의 회원국간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APEC엔지니어와 EMF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등 9개국이다. 영국, 아일랜드 남아공 등 3국은 APEC경제권에 속하지 않는 관계로 APEC엔지니어협력기구의 회원국은 아니나 EMF 정회원국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EMF가 APEC보다는 좀더 범세계적이라 할 수 있다. 2000년 11월 APEC엔지니어 회원국간의 합의에 따라 한국은 호주

를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하여 2006년 9월말 현재 53명의 APEC엔지니어등록증을 발급한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APEC엔지니어에 관한 업무를 노동부산하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 추진해 왔으나, 기술사제도의 개선으로 기술사 국제통용성 관련 업무를 2007년 3월 30일부로 당시 과학기술부인 현 교과부로 일원화 한다는 과기부와 노동부간의 합의에 따라 한국 기술사회(KPEA)로 인계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APEC엔지니어와 EMF의 국제기술사에 관련된 업무는 한국기술사회에 의하여 수행 될 예정이다.

4. 2007년 IEM회의와 한국의 WA 가입 승인

ABET(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 Technology)에 의하여 주최되는 국제엔지니어링회의(IEM)는 2001년부터 시작하여 매 2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워싱턴협약, APEC Engineer 협약, EMF 협약 등을 포함하는 여섯 가지 국제협약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있다.

2001년에 남아공에서 첫 번째 IEM(International Engineering Meetings)회의를 시작으로 2003년 뉴질랜드, 2005년 홍콩, 2007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등 2년마다 개최되었으며 2009년에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MF와 APEC엔지니어 양 기구 공히 회원국 가입요건으로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심사와

해당 국가의 WA가입을 중요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6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IEM2007회의에서 WA의 정회원국으로 가입이 승인되었다. WA는 공학계열 졸업자의 학력에 대한 상호인정을 목표로 하는 미국 등 선진국 공학교육인증 기관들 간의 국제협약체로서 국가 간 국제기술사 상호인정 시 학력요건 충족기관 선정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WA의 정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가로는 1989년에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6개국 이 1차로 정회원국이 되었으며 1995년에 홍콩, 1996년에 남아공, 2005년에 일본, 2006년에 싱가포르, 2007년에 대만과 한국이 정회원국이 되어 현재까지 도합 12개 국가가 WA정회원국이다. 그 외에 독일, 인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스리랑카 등 5개 국가는 현재 조건부 회원국으로 정회원국이 되기 위해 2009년에 다시 재심을 받을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2009년도에 가입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철저한 준비로 예상했던 것 보다 2년 일찍 WA가입승인을 받



▲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IEM2007 회의장에서

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된다.

ABEEK(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는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WA에 Signatory로 등록되어 있으며 2007년까지 국내의 37개 대학 295개 공학프로그램의 인증을 완료하였고 2008년 현재로 추가로 신청되어 있는 평가대상기관이 42개 대학 326개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 ABEEK에 의한 인증평가가 진행 중에 있다.

5. 한국의 FTA 추진 현황과 다자간협력시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오늘날 세계화 국제경제의 특징이며 지구촌 전역에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동시다발적인 FTA로드맵을 수립하여 글로벌 FTA전략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한-미FTA와 현재 협상진행 중에 있는 EU와의 한-EU간 FTA추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양대 경제권을 잇는 동아시아 FTA허브국가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전통적인 경제 강국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G7, BRICs, 한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을 포함한 G20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내년 4월에 개최되는 제2차 G20모임에서는 우리나라가 G20의 공동의장국 일원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다자간 협력시대에 우리 정부의 현명한 중재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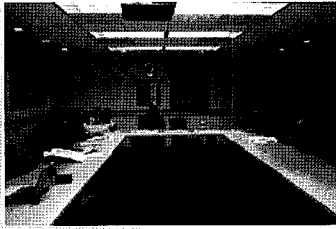
6. 우리나라 기술 인력의 세계시장 진출 전략

한국기술사회(KPEA)는 그동안 2002년부터 한국엔지니어와 미국엔지니어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미국기술사회(NSPE)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해 왔다. 지난 2007년 9월 29일 개최된 제 1회 전국기술사대회에서 KPEA의 이정만 회장과 NSPE의 Robert S. Miller 회장은 KPEA-NSPE간 합의된 제휴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서 양국의 기술사회는 APEC엔지니어와 EMF에 등록된 국제기술사들의 국제이동성과 관련된 면허 이슈를 탐구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설립키로 하였으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서비스와 관련된 FTA 및 WTO협상에서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 기술사들의 활동무대를 국내 뿐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그들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2006년 3월 국회 비준으로 발효된 한-싱가포르FTA협정에서



▲ ASEAN Federation의 AFEO 대표단과 함께



▲ NSPE본사에서 KSPE-NSPE간 회의장면, 2007년 6월, Alexandria, Virginia에서

양국 간 기술사 자격의 MRA(상호인정)를 합의하였다.

2008년 9월 6일 한국기술사회가 주최한 제 2회 전국기술사대회에서는 미국기술사시험 위원회(NCEES)의 진 콜리회장이 한국을 방문 참석하였는데 그동안 추진해오던 KPEA에 의한 한국 내 미국기술사시험 대행에 대한 NCEES와의 합의에 따라 한국기술사회와 NCEES간에 '한국 내 미국기술사시험 대행협약'에 관한 서명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 시행되는 미국FE(기술사보)시험 및 PE(기술사)시험은 한국기술사회가 NCEES를 대행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종전보다 더 많은 한국엔지니어들의 응시가 예상되고 있다.

7. 우리들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세계의 지구촌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지구촌의 변화는 급속도로 가속화 되고 있다. '토머스 프리드먼'은 그의 저서 '세계는 평평하다'에서 이제 지구는 둥근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계인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무한 경쟁하는 '평평한

세상'이라고 주장한다. 지금의 세계는 '세계화'가 '시대변화'의 주체이며 개인들이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협력하고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활동무대를 가진 사회라고 주장한다. 극동과 극서의 경계가 보이지 않은 채 이제는 더 이상 '지구촌의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 지구촌의 '세계화'는 바로 우리들의 곁으로 다가와 있다. '프리드먼'이 예견했던 것처럼 미국에서 하는 일들의 많은 부분이 국경을 초월한 채 인력의 이동도 별로 없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아웃소싱에 의해 저비용으로 인도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는 국가와 기업의 조직력보다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소중한 시대다. 동등한 조건의 무한경쟁사회에서 창조적 소임과 보람찬 삶을 갖기 위해서는 과거의 일상적이고 안주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나간 구시대의 관념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내부에 잠들어 있는 잠재력을 일깨워 새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무장해야 한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독창성을 연마하고 지속적으로 터득하는 새로운 전문지식과 창의적인 사고로 급변하는 지구촌의 세계화 시대에 주역이 되기를 기원한다.

〈원고 접수일 : 2008년 12월 15일〉